



St  
KIM andrew

St. Andrew Kim Dae Gon Korean Catholic Church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2/6/2022

22-07

Add: 4750 Challen Ave., Riverside, CA 92503 Tel: 951-533-0580 Email: standrewkim@sdiocese.org Website: www.standrewkimchurch.org

(백) 설

(Gr) 5th Sunday in Ordinary Time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irst part of the hymn.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second part of the hymn, including a red heart symbol.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third part of the hymn.

Handwritten musical notation for the fourth part of the hymn.

2022. 01. 31.

Handwritten signature/initials.

Handwritten signature/initials.

**본당 주임 신부님(Pastor)**

김대선 바오로, MSC  
Rev. Paul Kim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Sunday Mass**

한국어 / Kor. 10:00 am  
영어 / Eng. 3:00 pm

English Mass Celebrant: Fr. Ted Drennan

**평일미사 / Weekday (Korean)**

화/Tu 7:30 pm  
수/W 10:00 am  
목/Th 10:00 am  
금/F 7:30 pm

**성시간 / Eucharistic Adoration**

첫 금요일 / 1st Friday 8:00 pm

**첫 토요일 신심미사 / 1st Saturday Devotion**

첫 토요일 / 1st Saturday 10 am

**고해성사 / Confession**

미사 30분전  
(30min. before mass)

**병자성사 / Anointing of the Sick**

사무실 문의/Call Office

**유아세례 / Infant Baptism**

사무실 문의/Call Office

**혼배성사 / Marriage**

사무실 문의 (6개월전 신청) / Call Office (6 months advance)

**사무실 업무 시간  
Office Hours**

일/월/화/목/금  
Su/M/Tu/Th/F 9:00am-4:00pm  
수/토 휴무 W/Sat Closed

**본당 연락처 (Parish Contact)**

사무실 (Office)	951-533-0580
총무 (Pastoral Council)	전도미니코 (Dominik Jun) 714-458-4829
연령회 (Senior Ministry)	이마태오 (Matthew Lee) 951-733-0389
전례분과 (Liturgical Ministry)	김마지아 (Matias Kim) 303-882-7022
주일학교 (Religious Ed)	송세실리아 (Irene Song) 951-346-6151

**구역장 (Territory Leaders)**

	(총구역장)	
지식	윤(심포로사)	951-966-5868
지혜	임(유스티나)	951-235-1619
통달	현(마리안나)	909-767-8155
의견	김(로사)	909-297-0809
군셈	손(테레사)	805-407-5403
효경	정(바올리나)	951-454-3182
경의	김(테레사)	951-751-5696

**교황님 기도 지향  
(Pope's Intention)  
2월 / February**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

여자 수도자들과 축성 생활자들의 사명과 용기에 감사하며, 우리 시대의 도전들에 대한 새로운 응답들을 끊임없이 찾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For religious sisters and consecrated women**

We pray for religious sisters and consecrated women; thanking them for their mission and their courage; may they continue to find new responses to the challenges of our times.

설 (다해) / 5th Sunday in Ordinary Time (Year C)

【입당송 / Entrance Antiphon】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 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 오 리다.

O come, let us worship God and bow low before the God who made us, for he is the Lord our God.

【제1독서/First Reading】 ..... 민수 6,22-27 / Is 6:1-2a, 3-8

【화답송 / Responsorial Psalm】

◎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In the sight of the angels I will sing your praises, Lord.

【제2독서 / Second Reading】 ..... 야고 4,13-15 / 1 Cor 15:1-11

【복음 환호송 / Gospel Acclamation】

◎ 알렐루야. / Alleluia, alleluia.

○ 나날이 당신을 찬미하고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

Come after me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복음 / Gospel】 † ..... 루카 12,35-40 / Lk 5:1-11

【영성체송 / Communion Antiphon】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또 오늘도 또 영원히 같은 분이시다.

Let them thank the Lord for his mercy, his wonders for the children of men, for he satisfies the thirsty soul, and the hungry he fills with good things.

2/6 미사지향 (Mass Intention)

10am

오늘 10시 미사지향은 합동 연미사로 봉헌됩니다.

3pm

\*\*\*\* 미사지향 신청은 일주일 전에 신청 바랍니다.

Please request mass intention in a week advance.

너에게  
지혜롭고 분별하는 마음을 준다.

1열왕 3,12

I give you a heart so wise and discerning. 1Kgs 3, 12

## One who made the New Year's Day memories

Today is near the Lunar New Year's Day, and I recall my memories.

When I was very young, I used to be led by my grandmother to visit a relative's home. Although it was not very far away, it felt like I was visiting the other side of the world as a young child. Sometimes relatives came to my house, and I would sit next to them and fall asleep.

As an elementary school student, I used to play with my friends in the local streets on Lunar New Year's Day. Many kid games, like squid game, tag, flying a kite, and so on. When kids got tired of playing outside, we would go to someone's house and play a Korean board game. When one side makes a great move, the whole house gets filled with cheers, and even a fight breaks out. Kids play until dark, and moms call their children to come back for dinner.

As I became a college student, fewer kids were playing outside. I also met my friends in cafes or pubs instead of a local street.

I got a job after graduation, and I was too busy to stay with my family. Oftentimes, I had to work all night on New Year's Eve. So all I could do on New Year's Day was to visit my parents' house in another city at dawn, say hello to them, and go back to work right away.

After becoming a priest, I had to stay in the monastery, so I could not visit my family either. But, interestingly, now, like when I was a child, I am led by my abbot, or I was able to spend New Year's Day cheering with the brothers in the community, playing traditional games. But, of course, we don't fight like kids.

Reflecting on the Lunar New Year's Day memories, it feels like I have gone through seasons like spring, summer, fall, and winter, and now I am back to spring. How were your last Lunar New Year holidays? I hope you can have some time to think about your Lunar New Year's memories.

A Bible verse comes to my mind with those memories on the Lunar New Year's Day. Wisdom 7:17 says, "For he gave me sound knowledge of what exists, that I might know the structure of the universe and the force of its elements," And Ecclesiastes 33:8 says, "By the Lord's knowledge they are kept distinct; and he designates the seasons and feasts." These words let us recognize that there are no New Year's memories without God's will.

Today's Gospel tells us, "Gird your loins and light your lamps because you don't know when the Master will come again." The phrase indicates that we should have a light in our hearts to keep the darkness away as we continue on our spiritual journey. Phrases in Wisdom and Ecclesiastes tell us, even the ability to recognize that "God prepares all my days, and that Jesus is with us in all those days." also comes from God.

Master did not return yet does not mean that the master has disappeared. The owner hasn't returned cannot mean that a relationship with the owner is lost. Likewise, none of the New Year celebrations go without Jesus. If we don't know Jesus who is with us on this New Year's Day today, how can we recognize Jesus who will come to us again? I pray that you meet Jesus through this Lunar New Year Mass and walk with Jesus for another year, full of his grace.

Happy New Year!

Fr. Richard Kim

## 교리상식 101

### 2. 우리는 왜 주일마다 미사에 참례해야 하나요?

주일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세상이 구원되고 인류가 새롭게 되기 시작한 날로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불멸의 태양으로 여겨 주간 첫째 날의 명칭인 일요일을 '주님의 날' 이라고 하였고, 유대인들의 안식일(오늘날의 토요일) 다음 날인 주간 첫째 날에 함께 모여 공적 예배를 드리며 주일을 거룩하게 지냈습니다. 따라서 주일은 초대 교회 때부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따라서 주일은 초대 교회 때부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으뜸의 날로 여겨 왔고, 이러한 전통이 오늘 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려면 노동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정해진 것이 휴일입니다. 휴일의 첫 번째 동기는 주님을 섬기기 위한 것(미사 참례하는것)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저녁 미사에 참례해도 됩니다. 본디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관습대로 토요일 밑물부터 주일 일몰까지 주일의 축제를 지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사목적 요청에 따라 주일과 의무 미사로 바쳤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사목적 요청에 따라 주일과 의무 축일 미사를 저날 오후 4시부터 집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1-2항 참조). 따라서 토요일에 당겨 거행하는 미사도 '주일 미사'입니다. 주님을 찬미하는 일은 주일만이 아니라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므로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평일 미사에도 참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조: CBCK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 1

## Bible Trivia 1001

13. What significant event is recorded in Genesis chapters 1 and 2?
14. What was inscribed above Jesus' cross?
15. Whose mother placed him in an ark of bulrushes?
16. For how many days and nights did it rain in the story of flood?
17. What was special about Jesus' mother?
18. Who gave gifts to Jesus when he was a young child?
19. What happened to Jonah after he was thrown overboard?
20. In whose image was man created?

Answers from 1/30 Bulletin

1. Mary 2. Garden of Eden 3. Loaves of bread and fishes 4. Crucifixion 5. Rib 6. (Simon) Peter 7. Serpent 8. Crown of Thorns
9.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10. Daughter-in-law 11. Cain 12. Abraham

## 설날의 추억들을 지으신 분

오늘 설을 맞아서 그동안 지냈던 설들에 대한 추억을 돌아봤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에는 아직 살아계셨던 할머니 손에 이끌려 다니곤 했습니다. 별로 멀지 않은 곳이었지만 어린 저에게는 세상 반대편에 있는 것 처럼 멀게 느껴진 친척집으로 가기도 하고, 우리집으로 오신 친척 분들 옆에 앉아 있다 잠들곤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 설날이 되면 골목에서 또래들이 모여 함께 뛰며 어울려 놀았습니다. 오징어 달구지, 술래잡기, 탁지치기, 자치기, 제기차기, 연날리기. 골목에서 놀다 지치면 누군가의 집에 몰려가 편을 갈라 윗놀이를 했습니다. 결승점에 거의 간 상대편의 말을 잡게 되면 온 집이 떠나가라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다가 그만 싸움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어둑어둑 해지면 엄마들이 하나 둘씩 골목으로 나와 "누구야~ 밥 무로 온나~"하고 찾기 시작합니다.

중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는 더이상 골목에서 노는 꼬마들 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는 골목이 아니라 카페나 술집 같은 곳에서 친구들을 만나 놀게 되었습니다.

회사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일때문에 가족과 차례를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밤새 일하다 새벽에 잠시 다른 도시의 부모님 댁으로 가 아침에 세배만 드리고 바로 다시 회사로 돌아가 일해야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수도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수도회에 머물러 있어야 했기 때문에 집에 차례를 지내러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제는 다시 어린시절처럼 양성장 신부님에 손에 이끌려 다니거나, 공동체의 형제들과 제기차기나 윗놀이를 하며 환성을 지르며 설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릴적 처럼 그런 걸로 싸움까진 하지 않았지만요.

이렇게 지난 설들을 돌아보니 저의 지난 설들이 마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을 돌아 다시 봄으로 돌아온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의 지난 설날들은 어땠었나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지내왔던 설날들을 잠시 한 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난 저의 설날을 계절의 변화로 그려보니 떠오르는 성경말씀이 있습니다. 지혜서 7장 17절은 "바로 그분께서 만물에 관한 어김없는 지식을 주셔서 세계의 구조와 기본 요소들의 활동을 알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집회서 33장은 8절은 "날들은 주님의 통찰력으로 구분되었고 그분께서는 계절과 축일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과 함께 다시 돌아보는 것이며 지난 설 어느 하나에도 하느님의 손길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주인이 언제 다시 오실 지 모르니 깨어서 허리에 띠를 매고 등불을 켜 놓고 있어라"고 전해줍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영적 여정을 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둠을 계속해서 밝히려는 뜻이라고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설들을 돌아보며 떠올린 지혜서와 집회서의 말씀을 통해, "내 모든 날들은 하느님께서 마련한 것이며, 그 모든 날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능력 마저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되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서 주인이 이 세상에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주인과 나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매년 맞는 이 설들중 어느 하나도 예수님 없이 지내는 설은 없습니다. 오늘 이 설날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주일로 이동해 지내는 이 설미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시고 넘치는 은총 속에 또 한해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시길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본당소식 / Parish News**

◆ **설미사(2/1)**

오늘 2/6일(일)은 조상님들을 위한 합동 위령미사로 봉헌됩니다.

미사후 조상님들을 위한 연도를 바칩니다.

◆ **구역모임 (Territory Meeting) Zoom**

효경: 2/9(수) 오후 8시

통달: 2/10(목) 오후 8시

지식: 2/14(월) 오후 8시

군샘: 2/17(목) 오후 8시

경외: 2/21(월) 오후 8시

지혜: 2/23(수) 오후 8시

◆ **1/4 ~ 2/7 본당 신부님 비자 갱신 및 휴가**

이 기간 동안에는 MSC 한국관구에서 김준정 리처드 신부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김바오로 신부님을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Fr. Paul Kim will be traveling to Korea for visa renewal, please keep him in your prayers.

◆ **주일학교 임시 비대면**

현재 Omicron 확산으로 교구지침에 따라 1/9~3/31 까지 비대면으로 수업할 예정입니다.

Due to rapid increase of Omicron virus, Religious Ed will have online classes from 1/9 -3/31



◆ Families interested signing up for Sunday School or would like to volunteer, please contact Irene Song at 951-346-6151

◆ **봉헌을 위한 33일간의 준비 특강**

일시: 2/11(금), 2/12(토) 7:30pm- 9pm

강사: 손무진 사도요한 신부(천주교 가천 성당 주임신부)

Zoom ID: 828 6629 9516 Passcode# 45663217

문의: 이정화 헬레나(323-899-3202)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 **한국순교복자수녀회 영성센터<면형무아 성경공부>Zoom**

수강료: 1회 참석할때마다 \$5기부

신청문의: 562-900-8777(장명화 수산나 수녀)

2/15(화) / 2/18(금) 9:30am-11am

수요반 2/16 7:30pm-9pm

**2022년 교무금/교구발전기금 신립**

구역	교무금	DDF
경외	\$9,000	\$4,000
군샘	\$10,460	\$1,460
의견	\$14,000	\$1,100
지식	\$8,340	\$2,510
지혜	\$18,620	\$5,142
통달	\$6,720	\$1,360
효경	\$7,280	\$1,560
기타	\$480	\$480
합계	\$74,900	\$17,612

\*\*\* 58가정 신립

◆ **2022 신립서 / 2022 Pledge Card**

아직 2022년 신립서를 제출 못하신 교우분들은 성당입구에 비치되어 있는 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Please submit the pledge cards into the blue box at front of the lobby.

**1/30 우리들의 정성  
Weekly Contributions**

주일헌금/Plate	10am: \$815 3pm: \$151
교무금 Envelope	\$3,320 채진, 김병영, 홍완선, 윤원균, 김영희, 김조자, 이미자, 성정자, 오웬마, 임판수, 한현매, 익명
교구발전기금 DDF	\$30 홍완선, Rubyrose Bautista
합계 Total	\$3,929